

16/06/26(주) 주일예배 / 제목 :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 5:8) p.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를 보면서 삽니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나 뜨나 돈을 보고 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지의 미를 추구하는 데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두고 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한 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보면서 뛰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역시 무엇인가 각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앞에 놓고 그것을 쳐다 보면서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뛸 지라도 그 목표,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 비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을 본다'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두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예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해 달라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는 빈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 / 청결하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청결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한 2만 5천 번 정도 깜빡거리한다고 합니다.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액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게 만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보는 것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증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럼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청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의 22,2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러

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주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는 돈에 마음을 주면 마음이 갈립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마음이 갈려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창녀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가 마음에 드는 어떤 창녀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자꾸 끌리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 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받이고 낮이고 보면서 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가지고 매일 매일 사는 사람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불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끌어 앉혀서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안다고 할 때에는 한 가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이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품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품성, 사랑의 품성, 전지전능하신 품성, 무소부재하신 품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품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품성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33:18~23)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때를 쓰고 매달리자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요구를 들어주마. 그러나 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네 요구를 들어주마.' 하시고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잠깐 덮었다가 놓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가 막힌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리고 너에게 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이가 75세라면 나이로 봐서는 1, 2년 안에 아들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기가 막힌 시련입니다. 자기도 몸이 늙어가고 아내도 몸이 늙어 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늙은 몸에 애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신다고 해 놓고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세월만 흐르는 것입니다. 자기들 몸은 자꾸 늙어갑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시도 때도 없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날마다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아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늙은 몸이 되어 죽은 것 같이 될 지라도 반드시 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25년 동안 쳐다보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은 정치적 망명생활을 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00 여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날마다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녀야 했으니,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탄식하고 고통 할 때,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나 감으나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제 눈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오래 참으시면서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제

눈에 가득합니다. 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땀 흘려서 가꾸어야 할 보람된 것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부응하는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높고 숭고하고 매력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비참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을 잃고 주저앉는 이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이 갈려 있으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탄식하지만 말고 원인을 찾으십시오.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하고 탄식만 하지 말고 이유를 찾으십시오.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인가?' 탄식만 하지 말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밝게 사는 비결이요, 이 세상 사람 앞에 무언가 보여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 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또렷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다 됩시다.

**요약정리** /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을 가져야 하는데 본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 -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키에르케고르 -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에 있다.
-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일부분을 볼 뿐이다.
- 아브라함 - 전능하신 하나님을 봄 / 다윗 - 목자되신 하나님을 봄
- 여러분 -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